

5~6세기 신라 금장이식의 지역별 금 순도 비교연구

강정무* · 김수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Gold Purity of Shilla's Gold Earrings between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Jung-Moo Kang* · Soo-Ki Kim**

*Gyeongsangbukdo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Dept. of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Yong-in University

1. 서 론

신라의 금공 장신구는 4세기 후엽부터 발견된다. 5세기가 되면 금공 장신구가 경주 및 창녕, 대구, 경산, 성주, 의성 등지의 대형고분에 집중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신라가 주변지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로 수지형대관, 과대장식, 수하식부이식 등의 금공 위세품은 신라와 이 지역들 간의 강한 유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금공 장신구는 각지의 최고지배계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히 素環金裝耳飾(이하 금장이식)은 신라권 전역에서 대소고분을 막론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소형분 출토 금장이식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형고분 출토 위세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 금공 장신구의 소유 및 제작지의 문제를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금장이식의 과학적인 성분분석을 결과를 통해 경주와 지방간 금 순도 차를 비교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금공 장신구가 본격적으로 부장되는 5~6세기대로, 신라영역인 경주·대구·성주·의성·안동지역의 소형고분에서 출토되는 금장이식 76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 순도의 측정은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성·정량분석이 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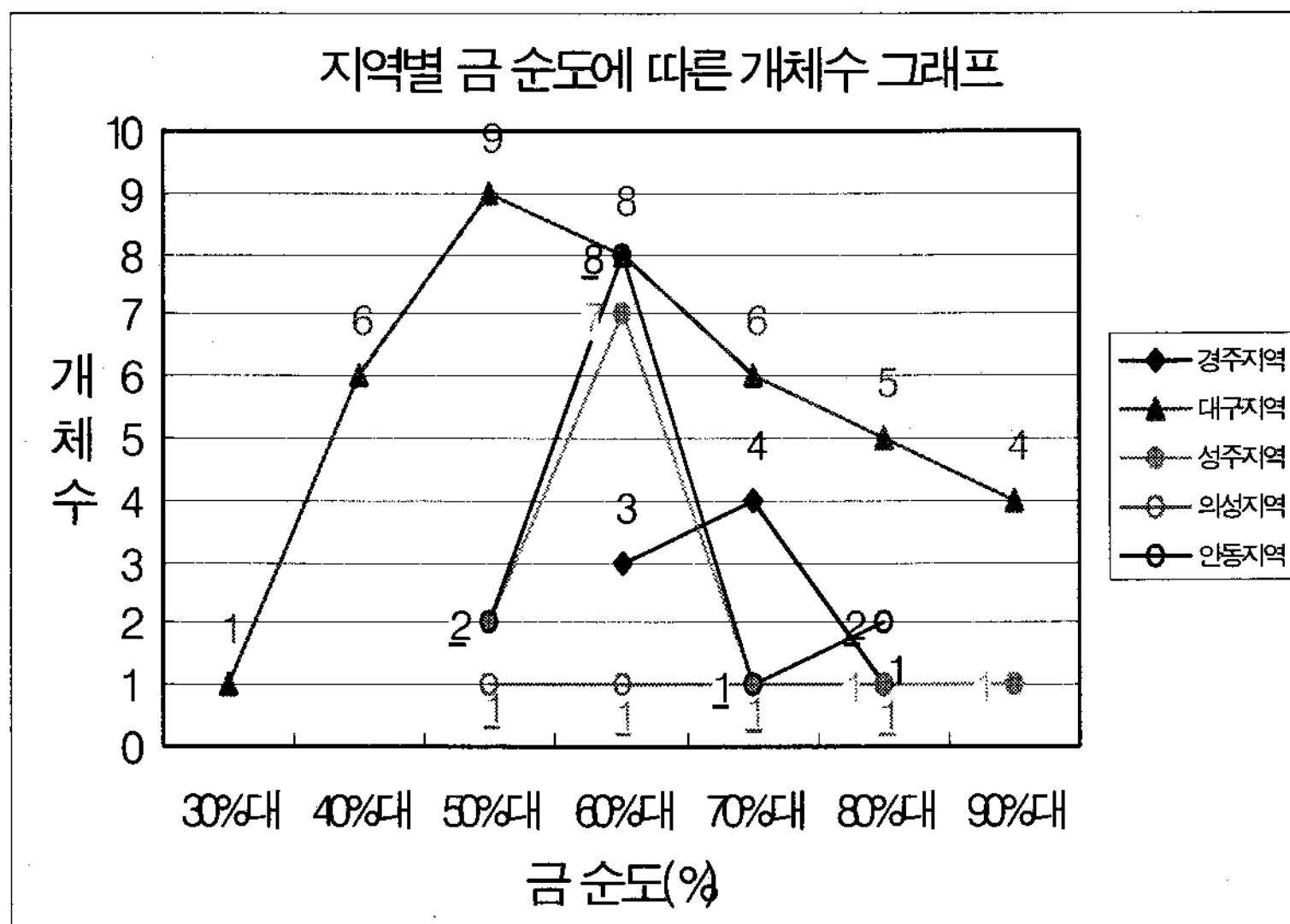
EPMA(Electron Probe Microanalyzer, 전자선 미세분석기, EPMA-1600, Shimadzu, Japan)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을 정성분석한 결과 Au, Ag, Cu와 미량원소 일부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금 순도 비교연구’와 관련된 Au, Ag, Cu 세 원소만 정량분석을 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3. 분석결과

금 순도 분석된 결과를 지역별로 금 순도에 따른 개체수 분포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그래프로 그려 비교 연구한 것이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의 그림에서 경주지역은 금 순도 70% 이상이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최저가 60%대여서 다른 지역보다 금 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50~7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저 39%의 순도를 보인다. 성주지역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의성지역은 수량이 적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50~80%에 분포하고 있다. 안동지역은 금 순도 60%대가 반수 이상인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 50%대의 순도를 보이고 있다.

소형분 출토품은 경주지역이 70%대를 중심으로 최저 60%대를 보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50·60%대를 중심으로 최저 30~50%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금 순도의 중심대와 하한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5 ~ 6세기 신라권 중소형고분에서 출토된 금장이식 76점을 정량분석하여 금 순도를 데이터화하였고 금 순도 차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정량분석을 한 결과 동이 2% 미만이고 금과 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이식 76점을 정량분석을 한 결과 금장이식의 금 순도는 전체적으로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금 순도 차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신라 중앙인 경주지역은 70%대를 중심으로 최저 60%대를 보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50·60%대를 중심으로 최저 30 ~ 50%대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경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금 순도의 중심 분포대와 하한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이러한 금 순도 차는 경주지역에서 금의 통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경주지역이 금 순도의 중심 분포대와 하한선이 지방보다 높다는 것은 경주지역에서 금의 생산부터 관여를 하고 분배를 통제한 것이라 생각된다. 바꿔 말하면 지방 공방에서 금장이식을 제작할 때 수요에 비해 금의 공급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금과 함께 다량의 은을 혼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론들로 보아 5 ~ 6세기 대 신라가 위세품의 분여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제작하는 금공 장신구의 재료가 되는 금의 양까지도 제한을 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박물관(2000). 경북대학교박물관 유적발굴40년. 개교54주년 기념 특별전. 경북대학교박물관.
- 이한상(1995). 5 ~ 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 裝身具分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3 서울大國史學科.
- _____ (2001). 황금장신구를 통해 본 신라와 신라인. 특별전 新羅黃金. 국립경주박물관.
- 李熙濬(1998). 4 ~ 5世紀 新羅의 考古學的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 朱甫暎(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洪潛植(2001). 6 ~ 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釜山大學校 一般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 西山めぐみ(2000). 古墳時代耳環考 - 福岡平野出土耳環の材質・製作技法について. 古文化談叢 第44集. 九州古文化研究會.